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출발

농·식품 기업 R&D혁신 역량 강화 전폭적 지원으로 식품기업 애로사항 해결 기대

국내외 우수 농·식품기업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7일 개소식을 갖고 익산식품클러스터에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며, 그동안 경기도 과천시 사무실과 원광대, 전북대 내 임시연구소(Site Lab)로 분리돼 운영됐으나, 지난 9월 30일 익산으로 이전을 마친 바 있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새로 설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일재 행정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국회의원과 각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첫 발돋움을 축하했다.

이날 지원센터는 입주기업 등 국내외 식품기업들을 도와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키워 내겠다는 당찬 비전을 홍보하며 테이퍼 커팅식 등 개소 축하 세레모니를 가졌으며, 한쪽 편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할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 전시하며 기업을 홍보 하는 등 개소식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공식 행사와 축하 세레모니에 이어 행사 참가자들은 국가식품클러



시차단방역 대책회의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와 정읍에 고병원성 시가 발생함에 따라 7일 9시30분 도청종합상황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업체 등 관련인들과 고병원성 시 차단방역 대책회의를 가졌다.

스터의 핵심 R&D시설을 견학하며 장비 시연을 관람했다. 이날 견학한 기업지원시설은 지난 2014년 7월 착공해 6개동 연면적 2만 8,705㎡(8,683평) 규모로 총 사업비 648억원(국324, 도97, 시227)을 투입해 건축 완료됐으며, 입주 식품기업들의 R&D혁신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설 내에는 식품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으로 국비 410억원을 투입해 최신 R&D 장비를 갖춰 추가 된다. 현재는 일부 필수 장비들만 구축되어 있는 상태나, 앞으로 기업 입주가 가속화에 맞춰 확충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식품산업을 선도하기 바란다"며, "우리 농식품기업들에게 성공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최고의 식품전문산업단지로서 육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전 수렵장운영 전면 중단결정

AI 확산 따라

전북도가 정읍,남원,완주에서 운영중인 수렵장을 AI가 확산됨에 따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3개 시·군에서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 중이었으나 AI가 확산됨에 따라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25일에 수렵장 운영 시군과 AI 대응 긴급회의를 통해 시·군 방역대책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AI발생 인접지역 수렵장제 권고,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한 소독 실시, 수렵장 동물은 밀봉 운반, 열처리 사용 등을 SNS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안내토록 했다. 또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감시 인력 보강, 수렵지역 축소·조정 등을 권고하고, 감제시 발생지역과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 일대와 남원시 전역에서 수렵장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정읍시 고부면 옥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정읍시도 시 전역에서 8일부터 수렵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완주군은 12일부터 23일까지를 AI확산의 고비로 보고 완주군 전역의 수렵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이후에 AI상황을 보고 수렵장 완전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군산 월명어린이집 놀이터 '우수' 선정

국민안전처, 도내 첫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2016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군산 월명어린이집 놀이터'가 선정됐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한 놀이 공간의 설치와 상시적 안전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선정사유를 보면 군산 월명어린이

집놀이터는 다양한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종합놀이시설, 자전거 및 자동차 주차장, 음률 및 미술놀이 영역으로 구성하고 놀이기구 또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설치한 점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서와 인증관이 부여되고 향후 5년간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되며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회에 한해 교육면제 특전이 부여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 마을기업 희망마당 개최

전북도와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7일 전주시 중화산동 리투체에서 '마을기업 희망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도마을기업협의회 임원 및 도내 100개 마을기업 관계자, 시군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올 한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방향 정립 및 마을기업들 간의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을기업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아울러 도내 우수마을기업 생산품 전시회 및 성공 사례 발표를 통해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농촌 및 구도심에 마을기업이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지임대료 현재 쌀값으로 인하해야”

“농어촌공사 현물 납부 수용도”... 쌀생산자협회, 농민 피해 최소화 주문

농지임대료를 현재 쌀값으로 인하고 현물납부를 수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농지매매 이지를 인하고 현물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쌀 생산 농민들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한 농민들의 이자나 임대료를 지불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

한 농민들은 현재 쌀값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16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쌀값 대폭락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는데 농지매매 이자나 농지임대료는 전혀 변화가 없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시중의 쌀값은 12만원대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판매하는 버 가격은 3만5,000원 정도로 쌀(80kg)로 환산하면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이라며 “여기에 2월에 지급예정인 변동지불금을 보태더라도 농민들의 수취가격은 쌀값으로 환산하면 13만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는 농어촌공사는 농지매매 이자 인하고 농지임대료를 현재 쌀값 수준으로 인하고 현물납부를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같은 요구를 농어촌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지임대료 현물납부, 농기계 반납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 사업자금의 상환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융자원금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으로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협업 활발

국가 R&D 과제 2건 발굴

출발 2년차인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가 올해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 R&D과제 발굴 등 왕성한 활동으로 전북도에 필요한 실용적인 국가R&D 과제 2건을 발굴했다.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올 상반기에 운영계획을 보완하고 참여위원을 재위촉하는 등 계획과 조직을 재정비해 '협업 강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새출발했다.

이후 분과별로 공동R&D과제 1건 발굴을 목표로 '아이템 수요조사', '자체 검토', '아이템 확정', '요약서 작성'과 기술정보 교류 등의 분과모임을 개최해 공동R&D과제 아이템 4건을 발굴했다.

공동기획위원회는 아이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

고, 각 분과에서 제출한 과제는 심의를 거쳐 2건을 국가R&D과제로 확정했으며, 기획T/F팀을 꾸려 기획보고서를 내년 1월 중에 완료해 내년 중 임부처 공모사업에 응모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국가R&D과제를 발굴·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참여한 위원들의 진정성과 분과 위원장·간사의 리더십이 더해져서 얻은 소통과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화촉진분과는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수출식품기업이 자율 참여토록 해 R&D,제품 개발,사업화 등 실용적인 과제 발굴 및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타 분과에서도 현장 참여를 확대해 실용적인 연구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